‘광주대표음식’ 주먹밥 상품화 본궤도

전문가 등 레시피 31종…시범업소 8곳 판매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 상징 대중화 모색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광주주먹밥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대표음식 및 올해의 음식으로 ‘광주주먹밥’이 선정된 이후 상품·브랜드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8곳의 시범 판매업소를 선정하고 전문가 레시피 11종 및 시민공모전 레시피 20종을 보급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범 판매업소는 ‘2019 미래식품산업전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맘스쿡·사진’을 비롯해 ‘행복한양림밥상’, ‘다르다김밥주먹밥’, ‘테스팅노트’, ‘광주주먹밥·오백국수’, ‘산수모밀’, ‘버무리떡볶이’, ‘푸드타임’ 등이다.

이들 업소는 시에서 보급한 레시피와 특성을 담은 개별 메뉴 등을 개발하고,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먼저 동명동에 있는 ‘맘스쿡’은 전문가 레시피에 아이디어를 더해 탄생시킨 ‘묵은지불고기쌈 주먹밥’을 대표 메뉴로 내세웠다. 묵은지불고기쌈 주먹밥은 묵은지 안에 양념된 소고기, 밥, 깻잎 등을 김밥처럼 말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제공해 벌써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019 미래식품산업전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한 ‘행복한양림밥상’(양림동)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꼬치 형태의 주먹밥, 낙지주먹밥 등 다양한 주먹밥 메뉴를 불백전골, 김치찌개 등과 함께 판매해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고 있다.

치평동에 있는 ‘다르다김밥주먹밥’은 친환경 유기농 재료만을 고집하는 대표의 남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모듬주먹밥 세트를 내놓았다. 또 다양한 색을 담은 주먹밥 레시피를 개발하며 대중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일하게 푸드트럭 형태로 운영되는 ‘푸드타임’은 우치공원 내에서 기존 메뉴인 핫도그, 커피 등과 함께 떡갈비·계란·야채 주먹밥을 판매한다.

시는 향후 시민 반응과 주먹밥 판매현황 등을 확인해 판매업소를 재정비하고 메뉴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상품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주먹밥이 광주만의 맛과 멋으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에서 협의회 사장단과 토론패널 및 참석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숙한 자치분권 확대·제도화 힘 모아야”

대신협·행안부 ‘자치분권 토론회’서 법안 추진방향·과제 논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행정안전부, 인천시가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자치분권 현장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참여3법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 기조발제로 나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정화 회장은 ‘자치분권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의의와 실태,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중석 대신협 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지방자치법,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방자치가 잘 자라나려면 무엇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협 관계자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기자

“여수 섬 연결 지방도 863호선 국도 승격을”

이광일 도의원, 남해안관광벨트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촉구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금오도 등 여수시 남면의 섬들을 연결하는 지방도 863호선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지방도 863호선의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도 17호선 기점을 여수시 돌산에서 남면 연도로 변경해 지방도 863호선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도 승격과 함께 연륙·연도교를 건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전남의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면서 제시한 블루 투어 프로젝트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으로 가시화했고, 정부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이 계획은 권역별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의회는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도에서 백야도 구간이 올해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돼 연도교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된 만큼 화태도에서 금오도, 연도 구간 연결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국도 승격을 건의한 구간에는 해안을 따라 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최고의 걷기 코스로 꼽히는 비렁길을 가진 금오도를 비롯해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섬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돌산에서 연도 구간이 연결돼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지고, 남해안 관광시대의 밝은 미래가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광주시의회 예결위, 5조7천억대 예산 의결

노동인권회관 전액 삭감…오늘 본회의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1일 5조7천1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 5조830억원 대비 6천294억원(12.4%) 늘었다.

일반회계 기준 4천280억원, 특별회계 기준 2천14억원 증가했다. 예결위에서는 3억2천만원(일반회계)이 늘었다.

아동 급식 지원비는 8억4천만원이 늘어난 76억300만원,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는 3억5천200만원이 늘어난 35억2천500만원, 마더박스 지원비는 4억원이 늘어난 9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공지능 관련 사업으로 미래산업정책과에서 올린 인공지능 실무 인재양성 혁신교육 운영비는 20억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스마트시티과에서 인공지능 인재육성 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됐다. 단 의회는 예산을 의결했지만,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조건으로 달았다.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CI 제작비 1억원, 세계화 기록 보존비 3천500만원, 민중항쟁구속자회 사진전 2천만원, 한시 백일장 1천만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광주형일자리 관련 ‘노사상생 도시’ 지원 사업인 노동인권회관 건립비는 사업 중복 등을 들어 20억8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5G 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45억원에서 절반인 22억5천만원이 깎였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다이 기자

국립심혈관센터 호남권 설치 본격화

장성 포함 광주연구개발특구 예정

전남도는 12일 “최종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사업비 2억원이 반영돼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설치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심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2위(24.3%)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진료비만 2016년 기준 9조6천억원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2015년 기준 16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가 절실해 왔다.

국립심혈관센터 호남권 설치는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공약이다. 2007년부터 도와 장성군,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립심혈관센터가 호남권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광주연구개발 특구에 설치되면 현재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고, 오송,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함께 심혈관계 스텐트, 인공판막 및 심혈관계 중재술에 이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의료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기자